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하은정 변호사(010-3791-6252)
대 변 인 구주와 변호사(02-598-3380)
사무처 02-599-4434 / http://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보도자료

한변, 공수처 불법 통신사찰에 국가배상 국민소송 추진

불과 1년여 전 온갖 위헌성 논란 속에서 출범했던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찰의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찍이 한변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흉내 낸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적제거에 복무하며 중국식 공안통치 시대를 열 것임을 경고하였고,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조직의 탄생을 막기 위해 치열한 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변은 지난 2020년 5월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공수처법안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한변 소속의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응답하라 헌법재판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30년 법조경력의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 양심, 인권,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였다. 당신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 중국 헌법인가, 북한 헌법인가.

한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작태를 묵과할 수 없어 공수처의 불법 통신사찰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공수처로부터 불법 통신사찰을 당한 모든 국민들은 한변의 변호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22. 1. 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 재 원